

전기전자

Dragon's Tech Tree #8.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 결정! So What?

2013. 9. 4

전기전자
Analyst 김현용, CFA
02.3779-8955
hyunyong.kim@etrade.co.kr

모바일 혁신주자 구글도 성공하지 못한 M&A,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전을 도모하긴 어렵다!

어제 저녁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및 관련 특허를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금액은 71.7억불로 휴대폰 사업부 50억불, 특허권 21.7억불에 해당한다. 모바일 패권을 상실한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서 보듯 세트업체 M&A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전일 4.6% 하락 마감하였다.

무너진 제국을 일으키기에는 인수자의 역량과 타이밍 모두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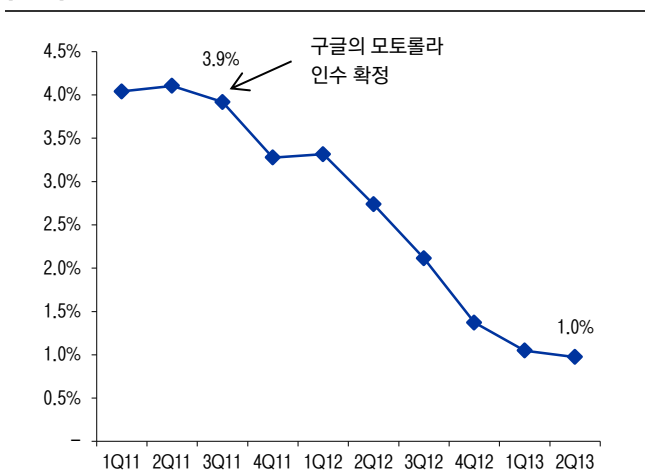
모바일 패권을 되찾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수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주는 이미 기울었고 액션의 타이밍도 늦었다고 판단된다. 모바일 혁신주자로 인정받는 구글도 세트업체 M&A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인수하고 2년이 지났으니 성과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체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은 주어졌다고 판단한다. 인수 당시 4%였던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분기 1%까지 급락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현지언론에서는 모토로라보다 글로벌 입지가 좋은 노키아를 그 당시보다 싸게 샀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점수를 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사실은 비싼 주식이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2011년 8월 인수 당시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OS의 53%를 점유했던 구글이다. 이런 구글도 모토로라 인수후 애플 먹고 있으며 본토인 미국에서부터 급락하는 모토로라 시장점유율을 방어하진 못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노키아를 통해 윈도폰을 출시하여 왔다. 양자간 긴밀한 협력 하에 윈도폰 성공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결과는 실패였고 루미아폰 출시 이래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2%에서 현재 3%까지 추락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노키아도 모토로라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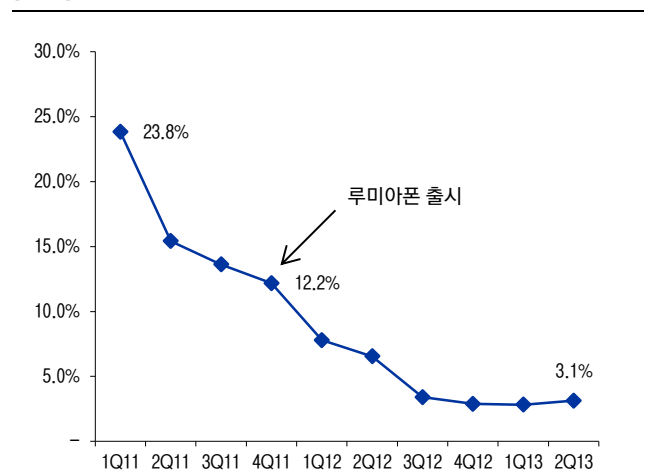
이번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노키아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피인수된 점은 기존업체에게는 아쉬운 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트업체 M&A 이후 피인수업체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결국 기존업체들이 흡수한다. 그렇다고 들뜬 필요도 없다. 이미 무너진 제국에서 더 이상 빼앗아 올 파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1] 구글 인수 이후 급락한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M/S



자료: IDC,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윈도폰 출시 3년째 스마트폰 M/S는 곤두박질 치는 노키아



자료: IDC,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